Merck, 한국사업 발전방향 모색

Merck KGaA 및 Merck Advanced Technologies의 사장인 Dr. Andreas Kruse(사진)가 2007년 1월1일 한국을 방문한다.

Andreas Kruse 사장은 한국을 방문해 한국사업 현황을 시찰하고 반전방향을 모색할 방침인데, Kruse 사장의 한국방문에는 화학사업 부문 책임자로 Merck KGaA의 이사회 멤버인 Mr. Walter W. Zywottek이 수행한다.

Anreas Kruse 사장은 1989년 Merck 그룹의 전자화학부 품질관리자로 입사해 1995년 전자화학 및 제휴기업 제품품질 분석팀 총 책임자, 1998년 플랜트 매니저로 화학부문을 위한 정밀화학과 액정의 유기합성 및 의약부문 총괄 책임자, 2001년 시니어 매니저로 시약 생산부서와 시약 생산 시니어 워킹그룹의 코디네이터 겸 Merck 그룹 운영위원회 멤버로 일해 왔으며, 2003년에는 부사장으로 승진해 Performance & Life Science Chemicals 부서 생산 및 공급망을 관리했고, 2007년 Merck KGaA 및 Merck Advanced Technologies의 시장으로 취임한다.

<화학저널 2006/12/21>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